

#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청년기 남녀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th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강 사 홍 성 례\*

Major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Lecturer : Hong, Sung-Ry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youth'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408 young men and women. All respondents answer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ng men and women were high. (b) There were changes toward the non-traditional direction in gender role attitudes of the youth. The young women exhibited more non-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than the young men. (c) Self-esteem and family socioeconomic status showed positive influenc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th. However, gender role attitudes were not associated with youth psychological well-being.

---

△주요어(Key Words) : 청년(youth), 자아존중감(self-esteem), 성역할태도(gender role attitudes),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 I. 서 론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우리의 삶은 물질적 풍요로움, 개인의 권익신장, 평등주의적 사고확산, 생활의 편리함과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기술 발전의 딜레마, 개인주의의 증가, 인간성의 상실,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인한 부적응과 갈등,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 등으로 건강한 삶의 영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화해와 협동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개개인의 심

리적 복지감, 건강한 가정 등에 대한 관심이 각 분야에서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자살 및 심리적·정신적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들(Rubenstein & Shaver, 1982; Shaver et al., 1985; 도현심, 1996; 전효정·이귀옥, 2000)에서 청소년기의 외로움 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청년들은 자아가 약하고 미래의 시간적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급격한 사회적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정숙, 1995)는 지적도 있다.

청년기는 발달과정상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기술발전의 변화

---

\* 주 저 자 : 홍성례 (E-mail : finetree7@hanmail.net)

속에서, 그리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 상승으로 사회진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청년들은 뜻하지 않게 많은 심리적·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어 청년기의 적응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년기는 심리적·사회적으로 심한 혼란과 복잡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내·외적 경험을 통합하고 성숙과정을 거쳐 성취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기이다. 그 국가의 청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균형 잡힌 발달과 건강한 정신세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 나라의 안녕과 복지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깊어질 청년들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성숙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성찰이나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기에는 달성해야 할 여러 가지 발달과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자아존중감의 발달이다. 청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행복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 하나로, 자기 자신을 가치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각 개인이 자기 내면에 지니게 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Winter et al., 2002). 자아존중감은 외적인 성공이나 실패보다는 내면적인 정신적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어 미래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공적인 적응과 연관된 보호적인 대처자원으로 작용하게 됨(한상숙·김경미, 2006)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가족구조, 기혼 여성의 취업증가, 성역할 가치관 등에 있어서의 일련의 변화로 인해 남성들의 가족역할 참여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그리고 맞벌이 가족에서 남편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한다할지라도 대부분의 부부들이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지 않다(마크맨 등, 2004)는 현실에 있어서, 각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심리·정서적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조금숙과 조증열(2004)의 연구에 따르면,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태도에 있어 평등성이 높을수록 무력감에 대한 저항점수가 높으며(김태련, 1990),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함께 나타내는 양성적인 사람의 정신건강이 좋으며 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높다(정현숙 등, 2003)는 주장들, 전통적인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남성의식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태현·김양호, 2003), 그리고 부부의 역할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인식할수록 결혼생활이 행복함을 제시하는 연구(Olson & Olson, 2000) 등은 성역할태도가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기에는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 배우자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서 자신이 미래에 담당할 역할을 수용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성역할태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결혼과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과 미래의 결혼과 가족생활을 예측하게 하는 성역할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이 심리적 복지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고찰하여, 청년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될 청년들이 좀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청년기의 발달특성

청년기에 대한 관심은 인간발달의 본질에 의문을 가졌던 고대 희랍의 철학자들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청년심리를 연구한 시기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라 할 수 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청년기를 이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보았다. 이후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특징을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라 보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청년기의 특성을 열정과 가변성으로 보았으며, 그들이 언급했던 청년기의 특성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청년기의 주제로 남아 있다(허혜경·김혜수, 2003).

에릭슨(Erikson, 1968)은 인생주기 중에서 특히 청년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는 이 시기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로 보았다.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청년기를 11세부터 22세 정도로 보았으며, 주요한 발달과업을 '정체감 대 정체감(역할)혼란(Identity vs.

Identity(Role) Confusion'으로 설명하였다. 청년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인관계를 통해 "...로서의 자기(自己)"를 파악하며, 다양한 면모의 자기를 통합해 나아갈 때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 반면에 청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좌절할 경우 '역할혼란'에 빠지게 된다. 에릭슨은 전생애 발달단계상 청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간주하였다.

해비거스트(Havighurst, 1952)는 청년기를 대략 13세에서 22세경으로 규정하였으며,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허혜경·김혜수, 2003). ① 자신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식한다. ② 같은 연령의 남녀 간의 좀더 새롭고 성숙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배운다. ③ 신체의 변화와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학습한다. ④ 부모 및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다. ⑤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⑥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며, 이를 준비한다. ⑦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한다. ⑧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이 요망되며, 이를 실천한다. ⑨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한다. ⑩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관과 윤리체계를 학습한다.

청년기의 청년들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습득하게 되면, 청년기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고, 성인 전기(24, 25~40세)의 과업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제대로 획득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 시기를 보내는데 어려움과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발달단계상 청년기는 한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나아가 사회와 가정의 새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단계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 정도가 높으며(Rubenstein & Shaver, 1982; Shaver et al., 1985; 도현심, 1996; 전효정·이귀옥, 2000),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시기이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수동적인 생활을 강요받아오던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자발적이고 다양하며 적극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청년기의 대학생활에 접할 때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청년들의 적응과 발달과업 달성에 주요한 토대가 되는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이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를 의미하며,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용어로는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상(self-image), 자기평가(self-acceptance) 등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구별된다. 자아개념은 판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련의 기술적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최보가·전귀연, 1993; 김태현·이영자, 2005).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Samules(1977)는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정적 측면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성,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보다 낮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상태'로 자아존중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Rosenberg(1981)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면서, 자신에 대한 우월감, 오만함,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Akin(1990)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내리는 평가'로서 항상 변화하는 축적물의 감정적 결과이며 이런 평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방법과 신체적 특징, 모든 영역에서의 학습능력, 재능, 기능, 성격, 특성, 다양한 집단 속에서의 지위 등과 같은 수많은 개인적 특성에 관하여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방법에 기초하고 계속 변화한다(김은영, 2000 재인용).

이상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란 개개인이 자신에 대한 인지적·평가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심리적인 양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태도 및 정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엄혜정과 정혜정(200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정홍(2001)과 노선(2003)의 연구에서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춘례, 1992; 이혜숙, 1998)도 있으며, 남녀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진용, 1990; 김옥숙, 2001; 김은주, 2002; 김태현·이영자, 2005)도 있다.

Lewin(1951)은 인간의 행동이 현재에 처해있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는 과거와 닥쳐올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미래의 시간적 전망과 비행, 자아통제기능, 충동억제, 불안은 미래의 시간적 전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청년들의 미래는 자아상 확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이정숙, 1995).

Rogenberg(1985)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년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며, 낮은 성취수준을 보였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원했던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며, 사회적 고립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년들은 자기표현에 대한 능력, 자기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인 지식 등의 특성을 보였다.

Branden(1969)은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이 욕구의 충족여부는 생사를 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Maslow(1965) 또한 개인 적응력의 한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아존중감에 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가치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정옥분, 1998).

이외의 다른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정신건강, 건강상태, 약물남용, 범죄, 자살, 사회관계 문제 등과 같은 비행과 관련이 있고, 자기 거부적인 행동이 자살행동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Wigfield et al., 1991; Winters et al., 2002; Gould et al., 2003), 여러 적응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청년기의 자아존중감에도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청년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간의 성장과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매진할 시기에 있는 청년들은 무엇인가에 공

헌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정서적 불안과 위기를 경험하여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성역할태도

청년 초기의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의 성역할에 대해 스스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그에 관한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한다. 청년기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청년들의 자아 정체감 발달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역할이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권 내에서 여자 또는 남자로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여러 자질 혹은 성유형화 과정을 통하여 성별에 따라서 습득하게 되는 성격특성, 태도, 선호경향, 행동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옥선화·정민자, 1992).

성역할과 관련된 개념들은 매우 다양한데,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지향성, 성역할 채택, 성편견, 성역할 고정관념 등과 같이 서로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한 개념들이 성역할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개념에 있어서의 혼란과 측정도구 및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서의 혼란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들은 성과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 통일된 용어 및 이에 따르는 정의가 부재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성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뜻한다(황은, 2004).

Osmond와 Martin(1975)는 성역할태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황경혜·황덕순, 1991). 첫째, 평등-불평등의 개념으로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생활 및 직업 영역에 수용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즉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근대적 태도의 개념이다. 둘째, 성역할 구분개념으로서, 전자가 여성의 역할에만 초점을 두고 남성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에 비해 이 개념은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다루었다. 남편과 부인의 역할을 양극으로 분리시키면 '전통적 태도'로 보고, 역할내용을 성에 의해 고정시키지 않고 융통성에 두어 함께 수행하는 역동성을 지향하면 '근대적 태도'로 보는 견해이다.

Scanzoni와 Fox(1980)은 성역할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황경혜·황덕순, 1991). 첫째, 사회계층(social class)에 근거한 성역할개념으로서 남녀의 성의 계층화(sex

stratification), 즉 여성의 남성에 의한 억압을 의미하며 남성은 지배집단이고 여성은 종속집단이라는 정치적 지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Engel의 경제구조에 기초한 남녀간의 노동분업의 개념으로서 공적인 영역을 담당한 남성의 노동은 교환가치를, 사적인 영역을 담당한 여성의 노동은 사용가치를 지니고, 여성과 여성의 일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남녀간의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이 더욱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여전히 불리한 계층에 속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셋째, 성역할규범(sex-role norm)의 개념으로서 위의 성계층제도 및 성별 노동분업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Ecke 등(2000)에 의하면, 성역할태도는 '성과 관련된 태도(gender-related attitudes)'의 하위개념으로 남자와 여자의 일을 직장일과 가정일로 구분하는 성별 역할의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Kite(2001)에 따르면, 성역할태도는 '성 신념체계(gender belief system)'의 하위개념이며,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태도 혹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황은, 2004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는 '가정 내 역할의 성별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정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조작적으로 정의하며,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양극화된 태도를 가진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라 하고, 역할내용의 융통성을 지향하면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라 하여, 이 두 가지 용어로 성역할태도를 대비하여 사용한다.

성역할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모든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좀더 평등주의적인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최규련, 1995; 고선주, 1997; 윤경자, 1997; 차성란, 1998)에서도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선미·김경신, 1996)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갈수록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명숙, 1996)에서도 남자 대학생보다는 여자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황은(2004)의 연구에서도 1991년도의 경우와 2002년에 조사된 연구결과 분석에서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여,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며 여성들에 비해 지체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연구들(Twenge, 1997; Brewster & Padavic,

200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Kane과 Sanchez(1994)는 남성들이 유급 노동시장으로의 여성의 유입을 수용하는 것은 쉬워도 가정의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남성에게 있어서 아내의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쉬워도 생계담당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기는 어려우며, 생계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가정의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것은 맞벌이로부터 얻은 잇점을 공유하면서 약간의 행동변화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짐스러운 일(황은, 2004)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성역할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근대적인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더 지체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에 해당하는 현재의 청년들이 성역할태도에 있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은 신체적 복지감, 물리적 복지감과 함께 개인의 복지수준 즉,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며, 생활만족도 및 행복감의 개념 중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수준(standard of lif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같은 용어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심리적 복지감은 객관적 개념 혹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실제로 초기의 연구들(Bubolz et al., 1980; Berry & Williams, 1987; Campbell et al., 1976)에서는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생활의 질이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Walker, Bubolz & Lee, 1991 재인용). 그러나 Ackerman과 Paolucci(1983)의 연구에서는 자원만족도 같은 주관적 지표들이 인간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장재정(1987)은 심리적 복지가 객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적 경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심리적 복지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Ross, Mirowsky와 Goldsteen(1990)은 심리적 복지감을 주관적인 차원에서 '삶에 대한 기쁘고, 희망차며 열정적인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쾌하고 좋은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Ryff(1985, 1989)는 기존의 심리적 복지감 측정이 현재의 정서적인 결과물(outcome)만을 반영

할 뿐 긍정적 심리상태의 특성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이론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지적하여, Maslow, Rogers, Jung과 Allport의 자아이론을 근거로 성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6개 하위차원[자율성(autonomy),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목적감(purpose in life), 자기수용(self-acceptance), 통제감(environmental mastery), 성숙감(personal growth)]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리적 복지감과는 달리 '자신의 삶과 자아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긍정적 심리 기능(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김경민·한경혜, 2004).

한편, 많은 연구들에서 심리적 복지감은 부정적·긍정적 차원을 동시에 지니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부정적 차원으로는 우울감, 불안감 등을, 긍정적 차원으로는 행복감, 생활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김오남·김경신, 1998; 신기영, 1999; 이재립, 2001; Bryrant & Veroff, 1982; 김경민·한경혜, 2004). 그러나 심리적 복지감을 임상환자에게 적용되는 불안이나 우울감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만 측정할 경우 이것을 일반인에 적용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이희정, 1994)는 점이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생활에 대한 모든 측면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며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또는 행복도 등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한 연구들(신기영, 1999; 이형실, 2000; 김연화·이정우, 2003)이 증가하고 있다.

심리적 복지감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정신건강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우울증과 정서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들(Cleary, 1987; Pearlin, 1989; Hyde & Frost, 1993; Benazzi, 2002)이 있으며, 김경민·한경혜(2004)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복지감 수준, 특히 목적감과 성숙감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심리적 복지감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연구들(Ryff, 1989; Hilleras et al., 2001; Wagner et al., 2002)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에 있어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을 '자신과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평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며, 기존의 우울감이나 행복감을 포함한 심리적 복지감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정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Tiedje, Wortman, Downey, Emmons, Bienat과 Lang(1990)이 제작한 well-being 척도

를 이용하여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한다.

## 5. 심리적 복지감 및 관련 변인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들에서 그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심리적 손상이 적어짐을 밝힌 연구(유양경, 1999),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들(Gould et al., 2003; 한상숙·김경미, 2006)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조사한 조금숙·조증열(2004)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경우 진보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양성적인 성역할정체감과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윤경자(1997)의 연구,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인의 결혼적응이 높으며, 남편 자신의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선주(1997)의 연구, 전통적인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남성 의식이 높은 집단이 남성 의식이 낮은 집단보다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태현과 김양호(2003)의 연구, 그리고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역할관계 비교에서 자신들의 역할관계가 전통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부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부보다 결혼생활이 훨씬 더 불행한 것으로 나타난 Olson과 Olson(2000)의 연구 등은 성역할태도가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혼의 청년기 남녀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구성은 여자 62.3%

(254명), 남자 37.7%(154명)로, 청년기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여자의 경우 평균 20.2세, 남자 평균 21.0세이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5세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42.0%, 2학년 22.9%, 3학년 20.6%, 4학년 14.5%로, 1·2학년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개신교(기독교) 28.7%, 천주교 16.2%, 불교 10.3%, 기타 0.5%이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44.4%를 차지하였다.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하층 8.5%, 중층 84.8%, 상층 6.6%로 나타나, 본 조사대상자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중층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이며, 1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다.

성역할태도는 Demaris와 Longmore(1996), Kulik(1999)의 연구를 기초로 강기연(2000)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역할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 이다.

심리적 복지감은 Tiedje, Wortman, Downey, Emmons, Bienat과 Lang(1990)이 제작한 심리적 복지감(well-being) 척도를 이희정(1994)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분이 좋았는지, 흥미롭고 즐거운 활동을 했는지,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 등에 관한 9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청년 자신이 주관적으로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판단하여 평가하는 9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2006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30명의 청년기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06년 4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혼의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에게 43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것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40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 그리고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t-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년기 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종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자아존중감 및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인 경향

#### 1)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에 제시).

청년기 남녀의 전체 자아존중감 수준은 자신에게 더 많은 존경심을 갖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중간 점수(3점)보다 높아,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포함된 하위내용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내용은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평균 4.19점)는 항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보인 내용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평균 3.90점)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내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보인 내용은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평균 2.16점)는 항목으로 중간점수이하의 평균점수를 보여,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

감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자신을 더 많이 존경하고 싶은 경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년기 남녀의 전체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내용도 있었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존경에

관련된 것으로 청년기의 여자보다 남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태도와 더 많은 존경심을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태도의 일반적인 경향

청년기 남녀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에 제시).

<표 1>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

문항내용	전체(N=408)	여자(N=254)	남자(N=154)	t값
	M(SD)	M(SD)	M(SD)	
자아존중감	3.56(0.56)	3.52(0.55)	3.61(0.57)	-1.52(n.s.)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19(0.84)	4.13(0.84)	4.28(0.84)	-1.69(n.s.)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3.68(0.86)	3.69(0.79)	3.66(0.96)	0.25(n.s.)
종종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61(0.96)	3.62(0.91)	3.60(1.04)	0.24(n.s.)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3.90(0.87)	3.87(0.83)	3.96(0.94)	-1.06(n.s.)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3.51(0.99)	3.49(0.94)	3.53(1.07)	-0.40(n.s.)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84(0.92)	3.76(0.92)	3.97(0.91)	-2.22*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3.49(0.95)	3.42(0.94)	3.60(0.95)	-1.87(n.s.)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16(0.98)	2.06(0.91)	2.31(1.08)	-2.40*
나는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80(1.02)	3.77(1.03)	3.84(1.00)	-0.70(n.s.)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39(1.00)	3.42(1.03)	3.34(1.03)	0.78(n.s.)

n.s. : not significant

\*p<.05, \*\*p<.01, \*\*\*p<.001

(\*)한 문항은 재부호화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그 문항내용에 대해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청년기 남녀의 성역할태도

문항내용	전체(N=408)	여자(N=254)	남자(N=154)	t값
	M(SD)	M(SD)	M(SD)	
성역할태도	3.72(0.60)	3.82(0.55)	3.55(0.64)	4.34***
부인이 직장생활하기를 원한다면 그 결정은 부인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	4.14(0.93)	4.17(0.86)	4.09(1.03)	0.75(n.s.)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3.16(1.18)	3.26(1.20)	2.99(1.12)	2.32*
아이를 건강하고 원만하게 잘 기르는 것이 여성이 사회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3.38(1.05)	3.47(1.04)	3.22(1.04)	2.33*
가정내의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부인의 의견 역시 남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4.62(0.69)	4.71(0.61)	4.48(0.79)	3.06**
남편이 가정에 경제적 만족만 준다면 가장 또는 남편의 일을 다하는 것이다.(*).	3.76(1.22)	3.79(1.23)	3.72(1.22)	0.56(n.s.)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부인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3.57(1.05)	3.62(1.03)	3.48(1.08)	1.28(n.s.)
남편에게 있어 부인이 가정살림을 잘 꾸려 나가는 것이 지적 동반자의 역할보다 중요하다.(*).	3.40(1.04)	3.51(1.00)	3.21(1.08)	2.90**
부인이 직장생활을 할 경우 남편은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4.28(0.86)	4.44(0.75)	4.01(0.96)	4.71***
부인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부인은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3.17(1.14)	3.42(1.04)	2.77(1.20)	5.52***

n.s. : not significant

\*p<.05, \*\*p<.01, \*\*\*p<.001

(\*)한 문항은 재부호화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그 문항내용에 대해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기 남녀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모든 내용에서 척도의 중간점수보다 높아, 본 연구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에 포함된 하위내용들 중에서 가장 근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가정내의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부인의 의견 역시 남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한다'(평균 4.62점)는 내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인이 직장생활을 할 경우 남편은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평균 4.28점)는 내용과 '부인이 직장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그 결정은 부인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평균 4.14점)는 내용이었다. 한편, 다른 내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인 내용은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평균 3.16점)는 내용과 '부인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부인은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평균 3.17점)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에서는 청년기 남녀 모두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비교적 덜 보였다.

본 연구결과, 청년기 남녀의 전체 성역할태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자보다 여자가 좀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상세하게 성역할태도의 각 하위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아이를 건강하고 원만하게 잘 기르는 것이 여성이 사회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가정내의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부인의 의견 역시 남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남편에게 있어 부인이 가정살림을 잘 꾸려 나가는 것이 지적 동반자의 역할보다 중요하다', '부인이 직

장생활을 할 경우 남편은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부인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부인은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등의 내용들에서 청년기 남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내용들 모두에서 청년기의 남자보다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좀더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인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부인은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여자 평균 3.42점, 남자 평균 2.77점)는 항목에서는 남자들의 성역할태도가 중간점수 이하로 나타났고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 청년기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인 경향

다음에는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3>에 제시).

청년기 남녀의 전체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걱정·근심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하위내용에서 중간점수(3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본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내용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복지감을 나타낸 내용은 '나의 미래는 희망차고 유망하다고 생각했다'(평균 3.61점)는 항목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평균 3.60점)는 항목이었다. 반면에, 다른 하위내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보인 것은 '나는 걱정·근심 없이 지냈다'(평균 2.63점)는 항목이었으며, 청년기 남녀 모두 중간 점수 이하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혀 걱정·근

<표 3>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

문항내용	전체(N=408)	여자(N=254)	남자(N=154)	t값
	M(SD)	M(SD)	M(SD)	
심리적 복지감	3.31(0.68)	3.31(0.67)	3.32(0.70)	-0.19(n.s.)
나는 기분이 좋았다.	3.50(0.96)	3.48(0.94)	3.54(0.98)	-0.60(n.s.)
특별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3.52(0.97)	3.48(0.98)	3.60(0.95)	-1.22(n.s.)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3.60(1.03)	3.65(1.02)	3.53(1.04)	1.08(n.s.)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칭찬을 받아 자랑스러웠다.	3.36(1.03)	3.43(0.94)	3.25(1.16)	1.59(n.s.)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뜻대로 진행되었다.	3.09(1.01)	3.11(0.98)	3.04(1.05)	0.73(n.s.)
나의 미래는 희망차고 유망하다고 생각했다.	3.61(1.03)	3.56(1.02)	3.68(1.04)	-1.13(n.s.)
내 마음은 편안했고 긴장되지 않았다.	2.99(1.04)	2.97(1.02)	3.02(1.06)	-0.48(n.s.)
나의 일을 즐겁게 했다.	3.49(0.94)	3.50(0.91)	3.47(1.00)	0.27(n.s.)
나는 걱정·근심 없이 지냈다.	2.63(1.15)	2.57(1.09)	2.73(1.24)	-1.35(n.s.)

n.s. : not significant

\*p<.05, \*\*p<.01, \*\*\*p<.001

심 없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한편, 청년기 남녀의 전체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복지감의 각 하위내용들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간의 상관관계

다음에는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표 4>에 제시).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복지감과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역할태도와 심리적 복지감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

이번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성별, 종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자아존중감,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성별, 종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자아존중감, 그리고 성역할태도 등이며, 이들 변인 중에서 성별(남자=1, 여자=0)과 종교(있음=1, 없음=0)는 명목척도이므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또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확대인자를 살펴본 결과, 모두 1.0이하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계수도 2에 가까워 잔차간에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음의 중다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이 상호 독립적임을 예견할 수 있으며, 독립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에 제시).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아존중감 등의 2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beta=0.45$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beta=0.1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청년기 남녀의 심

<표 4>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간의 상관관계

N=408

관련 변인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심리적 복지감
자아존중감	1.00		
성역할태도	0.01	1.00	
심리적 복지감	0.47***	-0.04	1.00

\*p<.05, \*\*p<.01, \*\*\*p<.001

<표 5>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408

독립변인	종속변인		T값 및 유의도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	
성별(남자=1)	-0.03	-0.02	-0.52
종교(있음=1)	0.11	0.08	1.88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0.07	0.14	3.12**
자아존중감	0.56	0.45	10.36***
성역할태도	-0.06	-0.05	-1.15
상수		1.13	
F값		26.94***	
R <sup>2</sup>		.25	
Durbin-Watson 계수		1.96	

\*p<.05, \*\*p<.01, \*\*\*p<.001

리적 복지감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성별과 종교, 그리고 성역할태도는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이 없었다.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의 25%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남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이진용, 1990; 김옥숙, 2001; 김은주, 2002; 김태현·이영자, 200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춘례, 1992; 이혜숙, 1998; 남정홍, 2001; 노선, 2003; 엄혜정·정혜정, 2006)의 결과와는 불일치하였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내용도 있었는데, 청년기에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존경심을 더 많이 지니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역할태도에 대한 연구결과, 청년기 남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좀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최규련, 1995; 이선미·김경신, 1996; 양명숙, 1996; 고선주, 1997; 윤경자, 1997; 차성란, 1998; 황은, 2004; Kane & Sanchez, 1994; Twenge, 1997; Brewster & Padavic, 2000)의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청년기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로, 보다 젊은 세대이긴 하지만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관적으로 남자들이 성역할태도의 변화에 있어 한계를 보이며 여자에 비해 지체현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성역할태도에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청년기의 남녀 모두 가정내 중대사 결정시 부부 공동결정과 부인의 직장생활시 남편의 공평한 가사일 분담에 대해서 매우 근대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인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두는 경우라면 직장생활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내용과 경제적인 절박함이 없다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에서 청년기의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덜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였다. 특히 '부인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부인은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는 내용에서는 청년기 남자의 성역할태도 점수가 중간 이하로 나타나, 현대사회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어린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부인이 지속적으로 직장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편은 생계 담당자로서의 주 역할에, 부인은 가사 및 양육담당자로서의 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청년기 남녀, 특히 남자의 경우 급속한 의식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의사결정이나 남녀의 가정 및 직장역할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를 하지만, 남자의 역할을 직장 역할로 하고 여성의 역할을 가정의 역할로 간주하는 기본적인 가정에 있어서는 청년기의 남녀 모두 신속한 변화나 강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의 기쁨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아, 청년기의 남녀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자신이 걱정·근심 없이 지내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에서는 청년기 남녀 모두 중간점수 이하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은 어느 정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 여성의 정신건강이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Cleary, 1987; Pearlin, 1989; Hyde & Frost, 1993; Benazzi, 2002)의 결과와는 불일치하며, 심리적 복지감에는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Ryff, 1989; Hilleras et al., 2001; Wagner et al., 200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복지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 그리고 성역할태도와 심리적 복지감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으나 성역할태도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높이 평가할수록,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유양경, 1999; 전효정, 2005)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과 종교, 그리고 성역할태도는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남녀의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윤경자, 1997; 고선주, 1997; 김태현·김양호, 2003; 조금숙·조종열, 2004; Olson & Olson, 2000)의 결과와는 불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을 바탕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영혼의 생존'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존엄성을 부여하는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싹트고 작은 성취나 칭찬 또는 성공을 통해서 형성된다(정옥분, 1998). 따라서 청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04년 조사에서, '삶의 질' 부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던 아일랜드의 국민들이 "외롭다(lonely)"는 단어의 인터넷 검색률이 가장 높아 고독지수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AM7, 2006). 또한 영국의 New Economics Foundation(신경제학재단)이 행복한 지구 지수(HPI, Happy Planet Index)를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233개 국가 중 GDP(국내총생산)가 207위에 불과한 오세아니아 군도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선정되었다(서울신문·머니투데이, 200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시, 가족

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을지라도 심리적 복지감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심리적 복지감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청년기 남녀의 성역할태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청년기 남녀의 세대경향을 반영한 연구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성역할태도 척도 내용이 가정내 역할의 성별분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직접적이고도 실제적인 결혼생활의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연구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차원을 측정하는 성역할태도 척도를 이용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미혼자와 기혼자 모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의 세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성역할태도와 심리적 복지감간의 관계양상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외에도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연구들에서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청년기 남녀의 성역할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들 보다 여자가 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녔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 결혼과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기의 남성들에게 건강하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좀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로의 변화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직접적으로는 평등주의적인 성역할태도로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에게 있어 자녀양육 및 직장과 가정의 이중역할 부담 해소, 그리고 가정내 역할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성역할태도 중에서도 특히,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태도가 좀더 직접적인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에 가족을 형성하게 될 청년기의 남성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기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본 연구대상자들이 차지하는 세대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한국 청년 전체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청년기 남녀의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성역할태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청년들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심리적 복지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의 기쁨과 관련된 내용에서 매우 높은 심리적 복지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년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지만 성역할태도는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혀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접수일 : 2006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6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0월 18일

#### 【참 고 문 헌】

-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사무직, 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선주(1997).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태도와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5(5)**, 17-32.
- 김경민·한경혜(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 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211-230.
- 김연화·이정우(2003).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 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18.
- 김오남·김경신(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07-123.
- 김옥숙(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0). 자기성장프로그램이 부적응자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례(1992).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업성취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련 윤희, A.G.카플란 지음(1990). **성의 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태현·김양호(2003). 중년남성의 남성역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 김태현·이영자(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73-193.
-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선(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자아상태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7(2)**, 33-45.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엄혜정·정혜정(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 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2)**, 137-152.
- 옥선화·정민자(1992). **결혼과 가족**. 하우.
- 유양경(1999). 노인의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1(3)**, 367-377.
- 윤경자(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이선미·김경신(1996).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태도: 모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1)**, 49-64.
- 이재림(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1995). 청년의 자아상에 적용된 사회극의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51-154.
- 이진용(1990).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형실(2000).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 경험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15-37.
- 이혜숙(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1994).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긍정적 정서와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재정(1987).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전효정(2005).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 과정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3(9), 85-96.
- 전효정·이귀옥(2000).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애착전이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애착전이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 185-198.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정현숙·유계숙·최연실(2003). **결혼학**. 도서출판 신정.
- 조금숙·조중열(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9(3), 27-41.
- 차성란(1998).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137-150.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하워드 마크맨·스코트 스텐리·수잔 블룸버그 지음, 김득성의 옮김(2004). **행복한 결혼생활만들기**. 시그마프레스.
- 한상숙·김경미(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37-44.
- 허혜경·김혜수(2003). **청년발달심리학**. 학지사.
- 황경혜·황덕순(1991). 남편의 자아개념과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63-75.
- 황은(2004).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77-89.
- Ackerman, N. & Paolucci, B.(1983). Objective and Subjective Income Adquacy: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life quality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25-48.
- Benazzi, F.(2002). Depressive mixed state frequency: Age/sex effects. *Psychiatry & Clinical Neurosciences*, 56(5), 537-543.
- Berry, R. E. & Williams, F. 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07-116.
- Branden, N.(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Los Angeles, California : Nash Publishing Corporation.
- Brewster, K. L. & Padavic, I.(2000). Change in gender-ideology, 1977-1996;the contribution of intracohort change and population turnov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477-487.
- Bryrant, F. B. & Veroff, J.(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 Cleary, P. D.(1987). Gender differences in stress-related disorders. In R. C. Barnett, L. Biener & G. K. Baruch (Eds.), *Gender and stress* (39-72). New York: Free Press.
- Demaris, A. & Longmore, M. A.(1996). -Ideology- Power and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4(3), 1043-1071.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 Shaffer, D.(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ic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 Havighust, R.(195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 Hilleras, P. K., Aguero-Torres, H. & Winblad, B.(2001). Factors influencing well-being in the elderly.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14, 361-365.
- Hyde, J. S. & Frost, L. A.(1993). *Meta-analysis in the psychology of women*. Westport: Greenwood.
- Kane, E. W. & Sanchez, L.(1994). Family status and criticism of gender inequality at home and at work. *Social Forces*, 72(4), 1079-1102.
- Kulik, L.(1999). Marital Power relations, resources and gender role ideology:A Multivariate model for assessing effec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0(2), 189-207.
- Lewin, K.(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New York; Harboer Bros.
- Maslow, A. H.(1965).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In

- D.E. Hamachek(Ed.), *The self in growth, teaching and learning*. New Jersey: Prentice-Hall.
- Olson D. H. & Olson A. K.(2000). *Empowering Couples*. Life Innovations, Inc., Minneapolis, USA.
- Osmond, M. W. & Martin, P. Y.(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744-758.
- Pearlin, L. I.(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241-256.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genberg, M.(1981).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M. Rosenberg and R. Turne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k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Ross, C. E., Mirowsly, J. & Goldsteen, K.(1990).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ealth: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59-1078.
- Rubenstein, C. & Shaver, P.(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206-223). New York: Wiley-Interscience.
- Ryff, C. D.(1985). Adult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motivation for personal growth. In D.A. Kleiber & M.L. Maehr(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d adulthood*, 4, 55-92. Greenwich: Jai Press.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i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amuel, S. C.(1977). *Enhancing self-concept on early childhood*.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33-36.
- Scanzoni, J. & Fox, G. L.(1980). Sex Roles, Families and Society. *Decade Review Family Research*(1970-1979), 20-21.
- Shaver, P., Furman, W. & Buhrmester, D.(1985). Transition to college: Network changes, social skills, and loneliness. In S. Duck & D. Perlman(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193-219). London: Sage publications.
- Tiedje, L. B., Wortman, C. B., Downey, G., Emmons, C., Bienat, M. & Lang, E.(1990). Women with multiple roles: Role-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3-72.
- Twenge, J. M.(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analysis. *Sex Roles*, 36(5/6), 305-325.
- Walker, R., Bubolz, M. H. & Lee, M. S.(1991). Contribution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to quality of family life of mid-life women and men. *Proceedings of 1991 conference workshop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Meeting - Family economic well-being the next century challenges, changes, continuity*, 167-179.
- Wagner, E. F., Lloyd, D. A. & Gil, A. G.(2002). Racial/ethnic and sex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and onset age of DSM-IV alcohol use disorder sympto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5), 609-619.
- Wigfield, A., Eccles, J. S., Iver, D. M., Reuman, D. A. & Midgley, C.(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
- Winters, N. C., Myers, K. & Proud, L.(2002). Ten-year review of rating scales III:scale assessing suicidality, cognitive style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ic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10), 1150-1181.
- AM7(2006). 살기 좋은 아일랜드 고독지수 세계 최고. 2006. 5. 17.
- 머니투데이(2006). 행복지수 1위 바누아투, 한국은 102위. 2006. 7. 12.
- 서울신문(2006). 지구촌 178개국 '행복지수'. 2006. 7. 13.